

Since  
2013.03.03

Date  
2020.03.29

KAKAO / cebulight  
PH / 0916 319 1863

God's Letter

01호



### 온라인 예배



단정한  
복장으로



핸드폰은  
무음으로



기도로  
예배준비



큰 소리로  
찬양하기

봉  
헌  
안  
내

# 온라인 헌금 :

- (1) 빌리암 페소 : 600/0049 3008 6650 / JEHWAN KIM
  - (2) 한국 원회 : 한국세미안행 / 360-58059-260-01 / 김재원
- 입금시 : 카톡으로 확인 메시지 보내주세요.  
(은행, 현금자, 현금카드, 금박)

### 다시 그 말씀 : 시련의 날 비상하라(3.22 주일설교)

1. 비상(非常, 뜻밖의 긴급사태)이 비상(飛上, 하늘로 날아오름)이다. '때가 저물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들으러 굶주린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상(非常)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 이 긴급한 상황은 여러분이 새롭게 날아오르는 비상(飛上)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적은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 굶주린 5000명을 위해 먹을 것을 사오자고 제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현실감 없는 답변을 주십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와 홍해를 가른 모세처럼, 또한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처럼,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손 위에 떡 다섯 개, 생선 두 마리 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3. 누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인가.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왓슨(G.D. Watson, 1845~1924) 이 시련의 날, 예수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 | 황재은



마음에 드는 인터뷰  
made in

어둠 속에서도  
곧 빛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  
오늘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 이승욱, 전연실 집사 가정 (사카.유주)

Keyword01\_ Covid19

거부할 수 없는 이 현실에, 처음 일주일 동안은 힘들고 벅갑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몇가지 규칙들을 세워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지지고 볶는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놔두어도 아무런 걸릴 것이 없는 일상이 참 감사하고 자유롭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감사하게 되고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도 곧 빛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Online  
Keyword02\_ Worship

처음 온라인 예배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떠올렸던 일이 현실이 되고 보니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기만 합니다.

Family  
Keyword03\_ Worship

가정 예배 때 지아가 드렸던 기도가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날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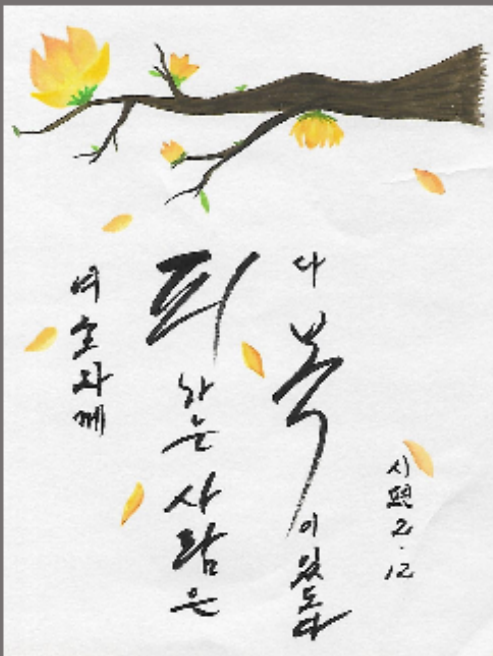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Keyword04\_ His Grace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 / 된 / 사 / 진 / 관



캘리그래피 | 서희경 그림 | 김하림

광고

1 온라인에 접속해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주일 온라인예배 : 11시 유튜브 검색창에 '세부광명교회'를 입력하세요

3 당분간 주일예배 외 모든 기도회와 모임은 잠정 중단되고,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4 직원이 출근할 수가 없어서 3월28일(토)부터 당분간 북카페는 닫습니다.

5 새가족성경공부 수료 예수 믿어야 하는 5가지 이유  
4로차: 류설마, 김만지, 권연주

헌금명단

십일조

김샘블(권은희) 남민성 박동훈 이준구(추성은) 황새은

감사

상석중 김영희 김제환 김효진 손승연 임지 오영성 오은혜 윤류건 이득희 이정은 이화신 부형

선교

김제환

건축

강식중 김제환